11. 보공장군공파(保功將軍公派)

계산 啓山, 10세, 보공장군공파 중시조, 5세 계룡의 현손(玄孫), 보공장군(保功將軍), 配손씨(孫氏)父영상(領相)간(侃). 묘 승화산 계좌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玄覃胤 현담윤 大將軍門下侍郎平章事 문하시랑평장사 延山君연산군 諡 景憲公경헌공 고려의종,명종대 (1170-90년대)	德秀 덕수 상서공 兵部尙書 병부상서 星山府院君 성산부원군 고려명종대 1215년 卒	元烈 원렬 太僕尹 태복윤 고려 충렬왕 대	敬輿 경여 典客令 전객령	嶔(금) 左贊成 (좌찬성)	1자 致龍(치룡) 都僉議寺事 도첨의사사	星州牧使派성주목사공파/南海縣令派남해현령공파/(全州)判官公판관공파/進士公派진사공파/司評公派사평공파/判尹公派판윤공파/昭威將軍公派소위장군공파					
					2자 繼龍(계룡) 令同正 영동정	浩明(호명) 彰 信 校 尉 (창신교위)	環(환) 郎將(낭장) 세 종 2 3 년 1441년生	1 仁亨인형 主簿주부 세 조 1 2 년 1466년生	壽수 訓鍊僉正 훈련첨정	僉正公派첨정공파	
								2 義良(의량)	義良公派의량공파		
								3 仁良(인량)	禹績(우적) 義州府尹	府尹公派부윤공파	
								4 尙文(상문)	啓山(계산) 保功將軍	1 賜奎 사규	碩壽 석수
										2 由星 유성	1 茂壽 무수
							珍(진) 進士진사	明遠(명원) 兵馬節度使 조선세종대	兵使公派병사공파		
					3 瑞龍(서룡) 左丞宣 좌승선	左承宣公派좌승선공파(서룡공)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碩壽 석수	萬齡 만령	應豹 응표	武旌 무정	4 德昌 덕창	2 禹楨 우정	3 天琇 천수	1 鳳周 봉주	1 啓祚 계조	1 弘載 홍재	1 時珏 시각	1 殷模 은모	1 有泰 유태	1 聖洛 성락	1 楠薰 남훈	1 炅珉 경민		
				5 德升 덕승	禹遠 우원	雲漢 운한	命禧 명희	啓默 계묵	廷厚 정후	時榮 시영	殷濟 은제	錫泰 석태	1 相朝 상조	1 龍燮 용섭	1 在善 재선	1 敬媛 경원	
													2 상윤相允 고려대 초대총장	1 圭燮 규섭	1 在慶 재경	1 沅錫 원석	
														2 寅燮 인섭	1 在天 재천	永潭	
															2 在民 재민	栗潭	
															3 在賢 재현	1 昇潭 승담	
																2 靜潭 정담	
																3 曝潭 경담	
1 茂壽 무수	2 勝璧 승벽	1 涇 경	1 喆琦 철기	1 忠信 충신	1 義浩 의호	1 圭 규	2 鳳佑 봉우	3 鶴壽 학수	2 仁福 인복	1 錫濟 석제	1 載昌 재창						

보공장군(保功將軍): 조선시대 무관(武官)으로 종3품 하계(下階)의 품계. 절충장군(折衝將軍: 정3품 당상관 품계)과 어모장군(禦侮將軍: 정3품 당하관 품계) 보다 낮은 지위.

성락 聖洛, 2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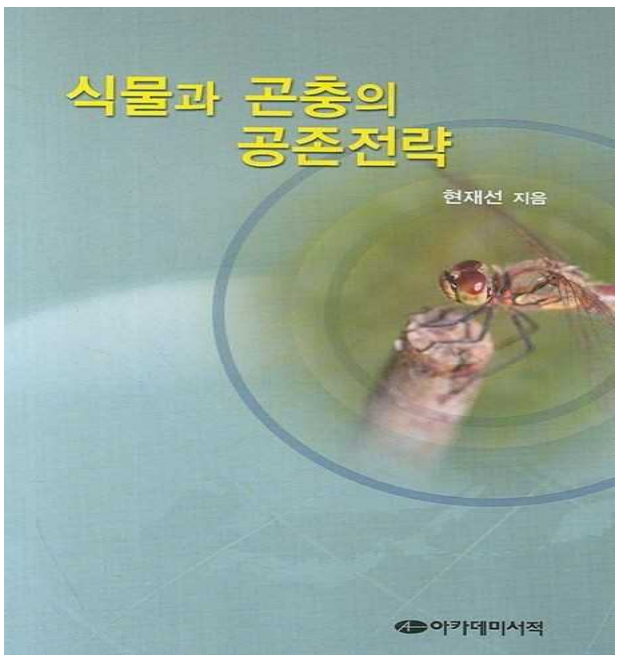
1934년갑술(甲戌)생, 오도(五道)신문사 경영, 남북일보사 회장, 대종회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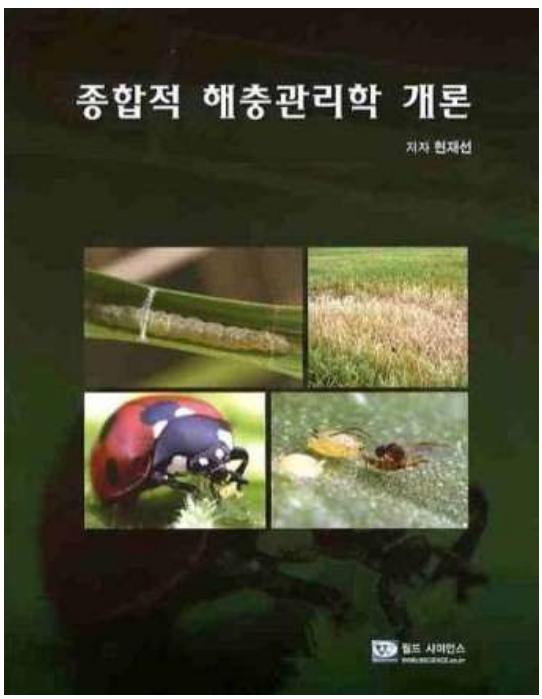
용섭 龍燮, 26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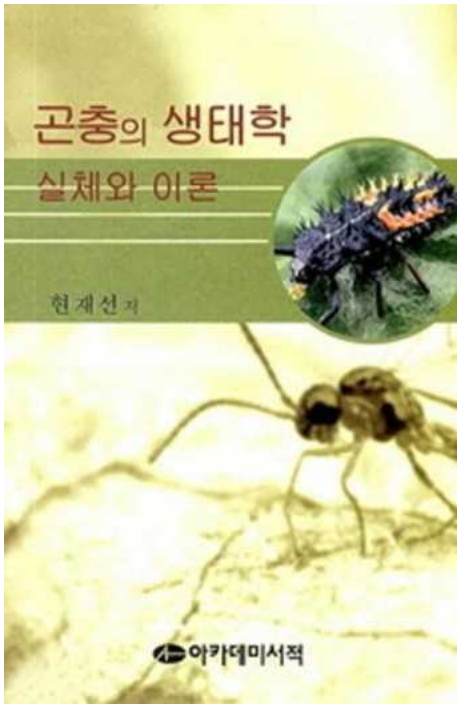
자 두섭(斗燮), 1905년고종(高宗)을사(乙巳)생, 족보에 '천성온후명석충효지극월남시증조고비조고비신위렬조가첩휴대(天性溫厚明晳忠孝至極越南時曾祖考妣祖考妣神位列祖家牒携帶)' 라 기록되어있다. 풀이해보면, 천성이 따뜻하고 두텁고 명석하고 충효가 지극하여 월남 시에 증조부, 증조모, 조부, 조모의 신위와 여러 조상의 가첩을 휴대하였다.

재선 在善, 27세.

용섭(龍燮)의 아들, 교육자, 농학박사, 한국곤충학회장. 호 송정(松庭), 1926년병인(丙寅) 정주생, 서울대학교농대졸, 미국미네소타대학교농학박사, 한국곤충학회장, 식물보호학회장, 농수산부정책자문위원, 서울대농대교수, 관정동물학상(觀庭動物學賞), 녹색혁명장려상, 국민훈장목단장(國民勳章牧丹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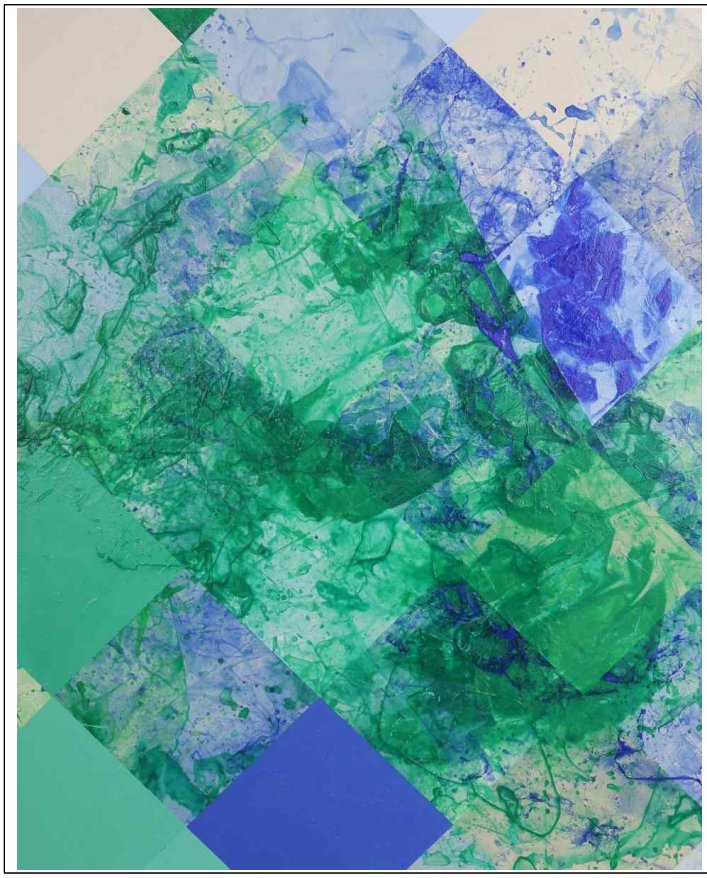
경원 敬媛, 28세, 1962년임인(壬寅)생, 화가, 이화여대미대졸, 재선(在善) 의 딸

현경원 Hyun Kyungweon

현경원 Hyun, Kyungweon (1985년 졸업)
oneact0824@gmail.com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2회
조형아트페어 (코엑스)
LA ARTSHOW (LA convention center)
한국 현대 contemporary판화
국제 북아트페어- 서울,프랑크푸르트,런던.
서울국제판화미술제 2007, 2006, 2004 (한가람미술관)
한국현대판화공모전,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상윤 相允, 25세. 고려대 초대 총장, 소설가, 독립운동가, 3.1운동 적극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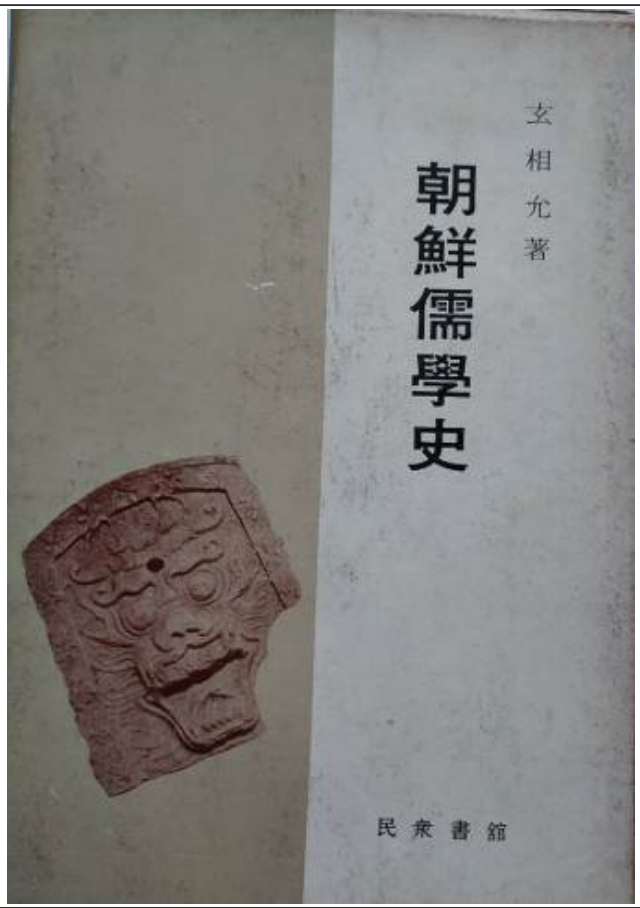
해방 이후 경성대학 예과과장, 고려대학교 초대총장 등을 역임한 교육자이다. 다른 이름으로 소성(小星), 집중(執中), 기당(幾堂) 등이 있다. 1893년(고종 30) 6월 14일 출생했으며 사망 연도는 1950년이다. 1893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출생했다. 1908년 정주군 부호육영학교(鳧湖育英學校) 졸업, 1909년 평양 대성학교에 입학했으나 폐교가 되어 경성 보성학교로 전학, 1913년 졸업했다. 1914년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에 입학해 1918년 졸업했다. 일본 유학 중 조선유학생학우회 기관지 『학지광』에 여러 편의 글을 기고했으며, 1917년 4월에는 『학지광』의 발행인 겸 편집인을 맡았다. 1918년 일본 유학생 단체 조선학회 조직에 참여하고 간사를 맡았다. 대학 졸업 후 귀국해 1918년 중앙고등보통학교 교사로 부임했다.

3·1운동 당시 48인으로 피검되었으나 1920년 10월 무죄판결을 받았다. 1921년 중앙고등보통학교 교장에 취임했으며, 1922년 11월 조선민립대학기성준비회 조직에 참여했다. 1924년 8월 조선여자강습회 조직, 1925년 3월 경성교육회 평의원, 이해 7월 조선체육회 위원에 선임되었다. 1929년 2월 재단법인 중앙학원 이사에, 1932년 5월 중앙고등보통학교 교장으로 재취임했다. 1934년 2월 과학데이 실행위원회 실행위원, 3월 조선물산장려회 이사, 5월 선전부 이사를 맡았다.

중일전쟁 이후 조선총독부 주최 시국인식 강화를 위한 제2차 시국순회강연회 연사,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비상시 국민생활개선위원회 제2부 위원에 선임되었다. 1939년 4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참사, 조선유도연합회 평의원, 1941년 녹기연맹과 국민총력조선연맹 참사, 1941년 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활동했다. 친일단체 활동과 강연뿐만 아니라 언론매체에 많은 친일 글을 기고해 전쟁협력을 강조했다. 해방 후 1945년 10월 경성대학 예과과장에 임명되었고, 1946년 2월 보성전문학교 교장에 취임했다. 보성전문학교가 고려대학교로 승격되면서 초대총장으로 취임했다. 한국전쟁 중 납북되었다. 저서로는 『한국유학사(韓國儒學史)』 등이 있다. 친일인명사전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수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 『친일인명사전』3(민족문제연구소, 2009)/『한국사』21·22 (국사편찬위원회, 1981)/『중외일보』(1929.2.18.)/『동아일보』(1920.4.6.·1922.11.30.·1924.8.1·1925.7.4·1934.3.8·4.27·5.11·1938.11.1)/『매일신보』(1919.8.3·7.8·7.9·7.16·1934.3.11)/『대한민국인사록』/『조선인사흥신록』

관련 미디어 : (4) 현상윤/소성의 만필 / 현상윤 광야 / 현상윤 다음 슬라이드이전 슬라이드



평양 재북 인사릉 현상윤 묘지

고려대학교 교정에 있는 현상윤 총장 흉상

규섭 圭燮, 26세.

상윤의 장남, 1911년신해(辛亥)생, 법학사(法學士)

재경 在慶, 27세.

상윤의 손자, 1935년을해(乙亥)생, 서울공대졸, 미국베리아대리하이대졸, 이학박사,경희대학교수

원석 沅錫, 28세.

상윤의 증손자, 1966년생, 서울대의대졸, 의학박사(醫學博士)

인섭 寅燮, 26세.

상윤의 차남, 1914년갑인(甲寅)생, 경성제대 의학부 졸업, 이화여대 교수, 숙명여대 이사장

재천 在天, 27세.

상윤의 손자, 인섭의 장남, 1944년갑신(甲申)생, 공학박사, 고려대 교수, 동양종합산업사장

재민 在民, 27세.

상윤의 손자, 인섭의 차남, 1946년병술(丙戌)생, 공학박사, 美커드스대교수(教授), 카이스트 교수, 숙명여대 원장

재현 在賢, 27세.

상윤의 손자, 인섭의 3남, 1949년기축(己丑)생 서울법대졸, 부산지검검사, 동양그룹회장, 동양그룹의 창업주는 이양구(李洋球) 회장이다. 재현은 이양구회장의 장녀 이혜경(李惠卿)의 남편이다.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은 1952년임진(壬辰)생으로 이화여대를 졸업했다. 동양그룹은 국내 최초로 사위가 승계한 그룹이다.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승담 昇潭, 28세. 상윤의 증손자, 재현의 장남, 1980년생, 동양네트웍스 대표.

정담 靜潭, 28세.

상윤의 증손녀, 재현의 장녀, 1977년생, 동양그룹 상무

경담 暻潭, 28세.

상윤의 증손녀, 재현의 차녀, 1982년생, 동양전자 본부장

인복 仁福, 21세.

자 경지(景之) 호 내운(棠雲), 1783년(정조正祖7)생. 족보의 기록을 보면 '순조신미서적경래지변수선창의고급병영이의병장오기공성종시효노제서벽인의승동부령배비안삼가마전군입위내현주부혜릉령배군승양지태화청풍도호부사겸충주진병마첨절제사범전칠읍개유덕정(순조(純祖)신미(辛未)西賊景來之變首先倡義告急兵營以義兵將五期攻城終始効勞際西壁引儀陞東部令拜庇安三嘉麻田郡入爲內賢主簿惠陵令拜羣陞陽智泰化淸風都護府使兼忠州鎭兵馬僉節制使凡典七邑皆有德政).' 풀이해보면... 신미년 서쪽 반란군 홍경래의 변에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키고는 의병장으로 급히 병영에 보고했다. 다섯 번 성을 공격하는 동안 시종일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서벽에서 의병을 이끌어 성 동쪽으로 올랐다. (그 공으로) 비안, 삼가, 마전 군수를 제수받았고 안으로 내현주부 혜릉(해석 불가?)이 되었다. 양지, 태화, 청풍 도호부사 겸 충주진 병마첨 절제사로 올랐다. 모두 7개 읍을 맡았었는데 모두 정치에 덕이 있었다. 1847년(헌종憲宗13년)에 돌아가셨다. 1857년(철종哲宗9년)에 '정충절탁이도내다사상언증좌승지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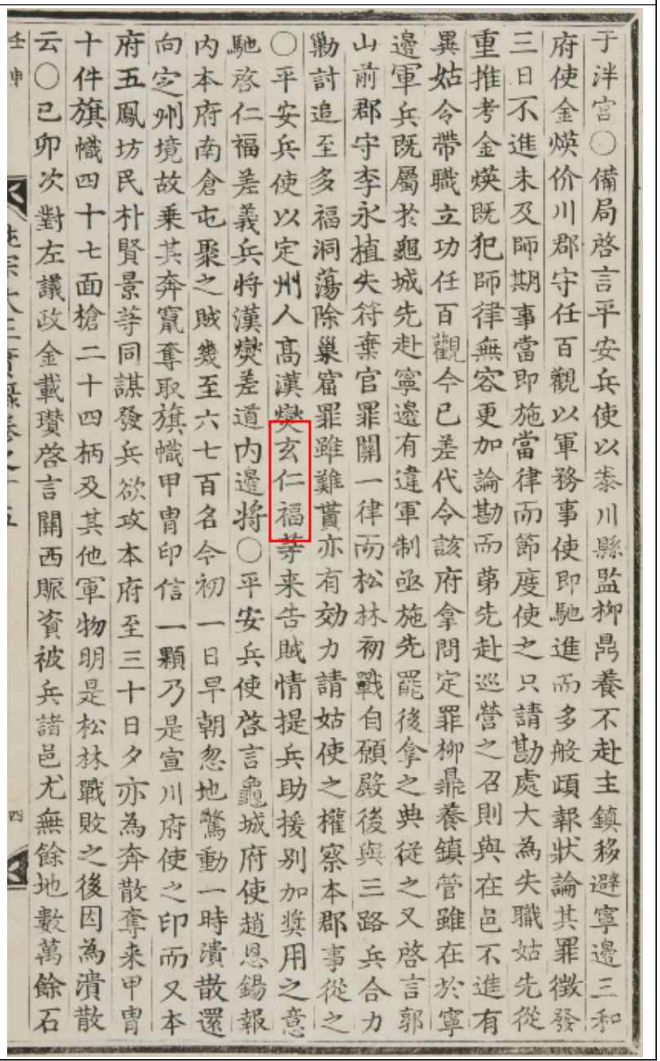
오순조대왕추존시가증호조참판(政忠節卓異道內多士上言 贈左承旨 무오(戊午)순조(純祖)大王追尊時加贈戶曹參判)’ 충절이 높고 특이함을 따져 도내의 많은 선비들이 상소하니 좌승지에 사후 제수되었고 순조대왕 추존시에 다시 호조참판에 사후 제수되었다.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등에 기록이 보인다.

조선왕조실록 > 순조실록 > 순조 12년 임신 > 1월 4일 > 최종정보
순조 12년 임신(1812) 1월 4일(무인)
12-01-04[03] 평안 병사가 정주의 고한섭과 현인복을 추천하여 각각 차임하다

평안 병사가 정주(定州) 사람인 고한섭(高漢燮)과 **현인복(玄仁福)** 등이 찾아와 적의 동태를 고하고 병장기를 들고 도왔으므로 따로 더 장려하여 써야겠다는 뜻으로 치계(馳啓)하니, 현 인복은 의병장에 차임하고 고한섭은 도내(道內)의 변장(邊將)에 차임하게 하였다.
【원전】 48 집 2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변란-민란(民亂)

○平安兵使, 以定州人高漢燮·**玄仁福**等, 來告賊情, 提兵助援, 別加奬用之意, 馳啓, 仁福差義兵將, 漢燮差道內邊將。


于洋宮○備局啓言平安兵使以泰川縣監柳昌養不赴主鎮移避寧邊三和府使金煥价川郡守任百觀以軍務事使即馳進而多般頃報狀論其罪徵發三日不進未及師期事當即施當律而節度使之只請勘處大為失職姑先從重推考金煥既犯師律無容更加論勘而第先赴巡營之召則與在邑不進有異姑令帶職立功任百觀今已差代令該府拿問定罪柳昌養鎮管雖在於寧邊軍兵既屬於龜城先赴寧邊有違軍制亟施先罷後拿之典從之又啓言郭山前郡守李永植失符棄官罪關一律而松林初戰自潰殿後與三路兵合力勦討追至多福洞蕩除巢窟罪雖難貰亦有効力請姑使之權察本郡事從之○平安兵使以定州人高漢燮玄仁福等来告賊情提兵助援別加奬用之意馳啓仁福差義兵將漢燮差道內邊將○平安兵使啓言龜城府使趙恩錫報內本府南倉屯聚之賊幾至六七百名今初一日早朝忽地驚動一時潰散還向定州境故乘其奔竄奪取旗幟甲冑印信一顆乃是宣川府使之印而又本府五鳳坊民朴賢景等同謀發兵欲攻本府至三十日夕亦為奔散奪来甲冑十件旗幟四十七面槍二十四柄及其他軍物明是松林戰敗之後因為潰散云○己卯次對左議政金載瓚啓言關西賑資被兵諸邑尤無餘地數萬餘石

일성록 > 순조 > 순조 12년 임신 > 1월 4일 > 최종정보
순조 12년 임신(1812) 1월 4일(무인)
12-01-04[14] 평안 병사 이해우(李海愚)가 정주(定州)의 향인(鄕人) **현인복(玄仁福)**을 의병장(義兵將)으로 차정(差定)하였다고 급히 아뢰었다.

○ 밀계에, "방금 장령(將領)들의 보고를 받아 보니 '어제 미시(未時)에 대군(大軍)이 곧바로 정주읍 남문(南門) 밖에 도착해서 성(城) 위를 바라보았는데, 배치해 세운 졸도(卒徒)의 수가 매우 보잘것없고 아무도 없는 듯 고요하며 성문은 굳게 닫혀 있으므로 우선 5

密啓以爲卽接將領等所報則初三日黃昏密啓以爲卽接將領等所報昨日未時大軍直到定州邑南門外望見城頭排立之卒徒數甚零星寂若無人城門則牢閉姑爲退陣於五里外相望之地定州鄕人**玄仁福**來言定州各面民多有募丁助援之類渠之所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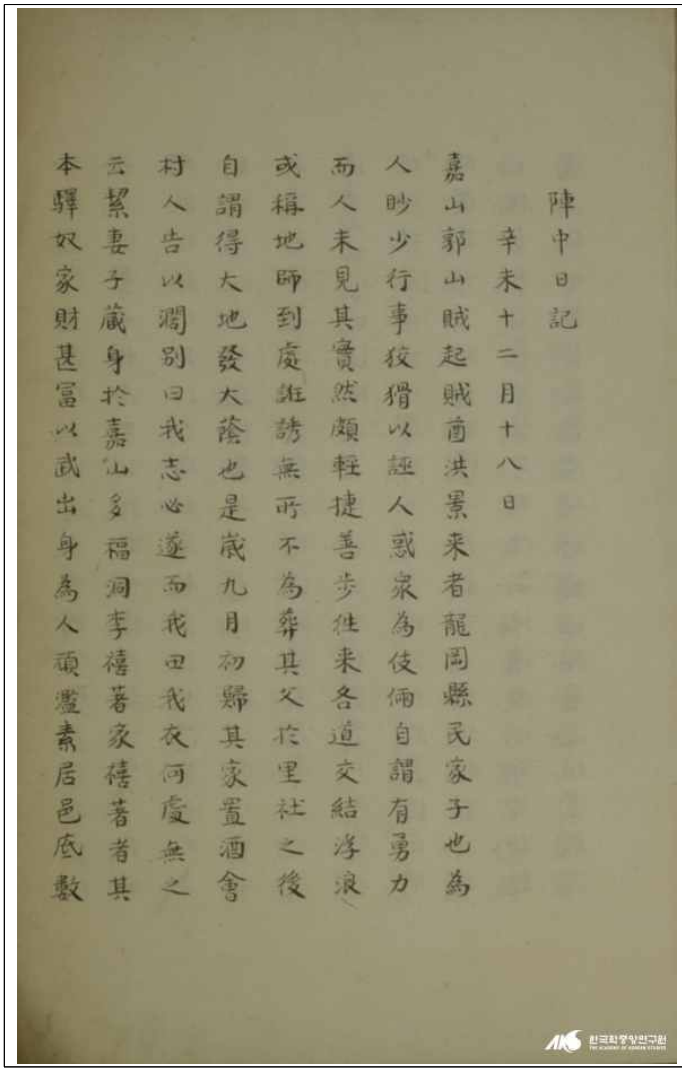
리 밖 마주 보이는 곳으로 물러가 진을 쳤습니다. 정주의 향인 **현인복**이 와서 말하기를 정주의 각 면민(面民) 중에 장정을 모집해 관군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가 모집한 사람도 50인이나 된다고 하면서 각기 빈 섬[空石]을 가지고 와서 군중(軍中)에 바쳤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전에 정주 사람 고한섭(高漢燮)과 현인복 등이 와서 적의 동태를 알려주어 그들이 중간에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병이 도착한 날 현인복이 병사를 모집해 달려왔기에 본영에서 그를 의병장으로 차정해 보내면서 전령수기(傳令手旗)를 만들어 주어 격려하고 감화되게 하였습니다. 정주성에 들어가 살고 있는 백성은 비록 적도가 이익으로 유혹하며 다그쳤지만 역시 대부분은 양심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므로 한문과 언문으로 방문(榜文)을 내걸어 반역(叛逆)과 충순(忠順)의 도리로써 효유하고, 그들이 내부로부터 혼란을 일으켜 적괴(賊魁)를 참수하거나 사로잡으면 각별하게 포상하겠다는 내용도 포고(布告)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달 2일에 보낸 밀계 중에 영변(寧邊)의 교졸(校卒)이 태천(泰川)에서 적괴 5명을 잡았다고 했는데, 이들은 바로 적도가 차임하여 본향(本鄕)의 향교와 향소에 투입해서 화응하게 한 사람들에 불과하므로 모두 효수하였습니다. 영하(營下)에서 가깝고 먼 여러 곳에서 연일 잡아온 적당이 17명이나 되어, 그중 자백을 받아 용서하기 어려운 자 6명은 즉시 효수하고 그 밖의 사람들은 모두 다스리지 않겠다는 뜻에서 엄히 곤(棍)을 치고 풀어 주었습니다." 하였다.	亦得五十人各持空石來納軍中前此定州人高漢燮**玄仁福**等因其來告賊情使之從中行事矣軍到之日募兵來赴**玄仁福**自臣營差送義兵將成送傳令手旗以爲激勸風動之地定州城人居之民雖迫於賊之利誘亦多良心之不泯者故眞諺揭榜諭以逆順之理使其亂由內作斬獲賊魁者各別褒賞之意亦爲布告初二日密啓中寧邊校卒之捉得賊魁五名於泰川者卽不過本鄕校鄕之捉入和應爲賊差任者竝爲梟首營下遠近諸處連日所捕賊黨爲十七名其中取服而難赦者六名卽爲梟首其餘則竝以罔治之意嚴棍放送

현인복(玄仁福)의 진중일기(陣中日記)가 전한다. 조선 순조 대에 일어난 홍경래의 난 당시 의병장이자 진압군이었던 현인복(玄仁福)이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매일의 일상을 기록으로 남긴 일기로 총 2권 2책.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난이 일어나 진압을 시작한 1811년 12월 18일부터 농민군에 대한 토벌과 처리를 완료한 1812년 6월 20일까지 약 6개월간 기록하였으며, 당시 수개월간 전쟁에 참여한 관군의 입장에서 기록된 일기로 관군과 의병들의 상황, 의주성 공성전 당시의 모습, 적군인 홍경래 군의 동향, 포로로 잡은 자들에 대한 자세한 인적 사항과 진술 내용, 난이 일어난 관서 지역의 민심 상황, 각종 심리전과 첩보 상황, 조정에 보낸 보고서들과 각종 장계 등을 그 시대의 목격자가 세세히 기록하여 남긴 것이다.

현인복(玄仁福)의 진중일기(陣中日記)는 관서평란록(關西平亂錄), 관서신미록(關西辛未錄),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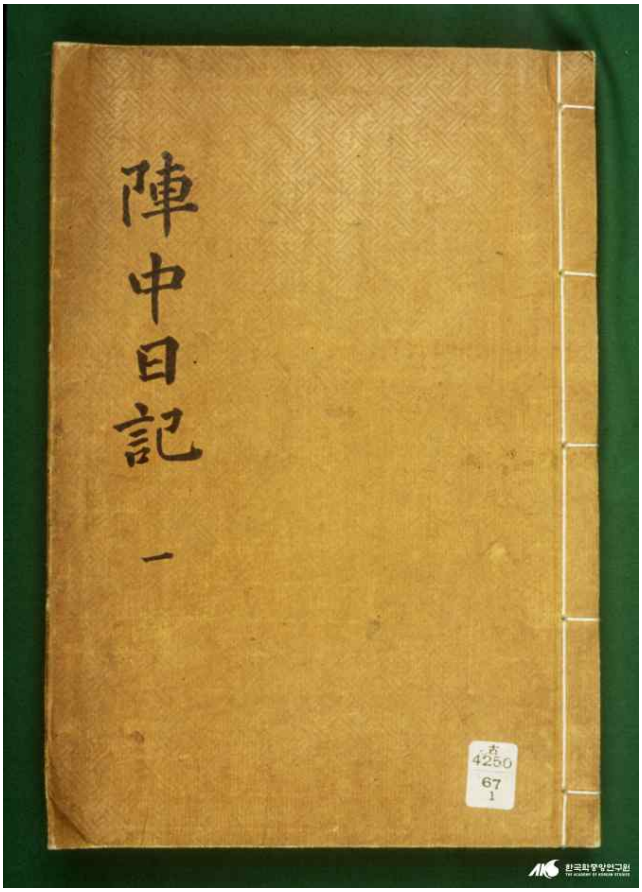
조신미별등록(純祖辛未別謄錄), 순무영등록(巡撫營謄錄), 안릉일기(安陵日記), 홍씨일기(洪氏日記), 순절록(殉節錄) 등과 함께 홍경래의 난을 직접 경험했던 인물이 전쟁 과정에서 남긴 소중한 1차 사료로, 실록 등의 중앙조정에서 남긴 관찬 사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여러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하고 연구해볼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사료총서 제 15집으로 발간하였다. 한국사 데이터 베이스 : 한국 사료 총서 제15집 西征日記 陳中日記 解說


陣中日記

辛未十二月十八日

嘉山郭山賊起賊酋洪景來者龍岡縣民家子也為人眇少行事狡猾以誣人惑衆為伎倆自謂有勇力而人未見其實然頗輕捷善步往來各道交結浮浪或稱地師到處誑誘無所不為弄其父於里社之後自謂得大地發大蔭也是歲九月初歸其家置酒會村人告以獨別曰我志必遂而我田我衣何處無之云絜妻子藏身於嘉山多福洞李禧著家禧著者其本驛奴家財甚富以武出身為人頑獷素居邑底數



원석 沅錫, 28세.

상윤의 증손자, 1966년병오생, 서울대의대졸, 의학박사(醫學博士)

남훈 楠薰, 26세, 1968년생, 통일5도신문 대표, 대종회 이사

연식 演植, 27세, 1958년생, 정주종친회장, 대종회 이사